

세계 종교 상황과 기독교



전호진 목사

21세기 기독교는 위축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타종교의 부흥과 도전이 갈수록 강하여지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는 종교가 이데올로기화하여 자신들의 종교를 절대화하면서 소수 종교를 박해한다. 반면 서구에서는 다원주의 신학으로 모든 종교의 평등성을 강조하여 전통적 기독교에 결과적으로 아이덴티티 위기를 초래한다. 성경은 타종교를 우상으로 정죄하지만 도리어 비기독교 종교들은 더 공격적이 되어 기독교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비서구에서 다른 종교와 대등하거나 우위의 입장에서 비기독교 종교와 갈등 관계에 있는 나라는 아마도 한국뿐일 것이다.

- 약력: • 미국 풀러신학교 선교학 박사
• 영국 웨일즈대학교 철학박사
• 전 고신대학교 학장, 현 고신교단 총무

먼저 현대 종교의 경향을 요약하면 부흥운동, 근대화, 선교 강화, 이데올로기화이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후 아시아에서는 종교가 이데올로기로 대치되고 있다. 이 점에서 현대 사회를 서구적 개인주의 사회, 북한이나 일부 공산국가의 전체주의(communism) 사회, 아시아의 종교적 집단주의(communalism)로 구분하고 비기독교 종교의 기능과 역기능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1. 아시아 종교의 복귀

현대는 비기독교 종교의 복귀 시대이다. 19세기 서구사회와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기독교가 전세계에 전파되고 서구문명과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는 점차로 쇠퇴할 것으로 보았다. 구라파의 실증주의 철학은 인류 역사를 신화의 시대, 종교의 시대, 과학의 시대로 구분하였다. 신화나 종교는 과학 이전의 현상으로 본 것이다. 종교는 소멸되거나 쇠퇴할 것이라는 생각에 공산주의자나 서구의 세속주의자들도 동일한 견해를 가졌었다.

서구의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는 서구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서 서구사회를 세속화시키면서 모든 영역에서 종교를 추방하였다. 1960년대에 미국이나 구라파에서의 세속주의 신학의 발전으로 종교 쇠퇴론은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문명이 발전하고 통신과 교통 및 매스미디어의 발전으로 세계가 지구촌(global village)이 되어가지만 종교는 오히려 더 부흥하고 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역사는 과학과 정보화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구시대로 돌아가

고 있다. 이는 과학이나 정보화가 인간의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무디 성경학교 선교학 교수 탈만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아주 적절하게 언급한다.

“사람들은 수많은 새 종교를 만들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은 과학시대를 거부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사람들의 옛 종교 패턴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였다. 현대 선교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다른 종교가 제기하는 외적 도전을 이해하여야 한다. “종교의 시장”은 전보다 더 바쁘다. 사람들은 인간의 영적 욕망을 충족시킨다면 새로운 종교나 혹은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무 것이라도 사거나 팔려고 한다. 종교는 과거와 연속성을 그리고 현재를 생각하게 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한다.”

그러면 왜 종교 복귀현상인가? 1960년대를 기점으로 서구 식민지 시대는 종지부를 찍고 비서구가 서구 식민주의에서 해방되면서 한때 반서구 감정이 지배했는데, 이것은 반기독교 감정으로 발전하면서 불가피하게 전통 종교를 불러들인다. 과거 한국사회는 지성인들이 기독교에 동정적이었으나 지금은 비판적이다. 이는 기독교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비판함으로 더욱 부채질한 결과이다. 참고로 다른 종교는 자아비판이 기독교를 따르지 못하거나 회교는 회교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아니한다.

자기 문화 정체성이 종교부흥을 야기한다. 아시아는 서구화와 세속화에 대한 반발로 서구문화를 모방하면서 동시에 전통 예로의 복귀를 외친다. 특히 국제화는 지방문화를 야기한다. 이 점에서 현대는 Globalization과 localization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코카 콜라와 맥걸리의 대결인 것이다.

인간의 영적 욕구는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의 수요를 증대시킨다. 그런데 순수 기독교는 타계적인 반면 비기독교 종교는 현실적인 문제를 더 잘 해결해 주는 것으로 오해한다. 비기독교 종교와 이단들이 더 현실적인 응답을 하는 것으로 대중들에게 어필한다. 그래서 일본에는 이단이 더 많고 해악이 더 심하다. 때때로 종교는 인간을 더 비인간화시키는 역기능을 하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의 기능과 역기능을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2. 종교의 기능

종교는 인간의 신 의식 때문에 세계의 보편적 현상이지만 동시에 종교는 인간 개인에게나 사회에 다같이 필수적이다. 이 점에서 문화 이전에 종교가 먼저라는 이론이 설득력을 가진다. 종교가 문화를 규정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이 점에서 문화는 종교의 옷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종교란 개인에게 삶의 의미와 우주세계의 시작과 과정을 설명하며 윤리와 가치관을 제공한다. 동시에 종교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도 한다. 여기서 종교의 기능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가) 종교의 위로 기능

종교는 불확실한 미래나 위기에서 인간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는 점에서 중요하다. 말리노스키는 종교는 인간이 죽음에 직면할 때 가장 확실하게 위로자가 된다고 말한다.

원시 부족사회는 수렵이나 농사 등을 대체로 공동으로 하는데, 수렵을 위하여 남자들이 산으로 갈 때나 벌꼴을 따러 갈 때 그들은 자기들의 신이나 영들에게 기도하고 제사드릴 것으로 마음에 위로와 보호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

나) 사회통합적 기능

현대 세계의 종교는 특히 한 국가나 사회를 통합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 아시아는 이미 언급한 대로 종교가 이데올로기 경향을 띠는데, 종교를 이데올로기화하는 근본적 이유는 종교가 한 국가를 통합하는 정신적, 문화적, 영적 구심점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인도의 힌두교 원리주의자들은 힌두교를 인도의 국교로 하여 철저하게 단합할 것을 호소하면서 다른 종교인들은 인도를 떠나라고 외친다.

이 점에서 간디는 문화가 배타적이 되면 생존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그의 외침은 메아리에 불과하다. 회교국가들이 회교를 철저하게 고수하는 것도 회교가 국가통합의 구심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원주민들이 회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징역이나 엄청난 박해를 각오해야 한다.

비서구 대부분의 사회는 종교가 사회통합의 강력한 수단이 되어 종교가 더욱 폐쇄화되고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신도도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을 하나로 묶어 주는 정신적 지주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다) 정당화 기능

종교는 또한 사회윤리와 법 혹은 정치제도까지도 정당화 혹은 신성화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과거 역사에서 왕은 신성

불가침의 존재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왕은 신이 세웠다는 종교적 신앙이나 관념이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중세 서구 기독교는 물론 중국도 왕은 하늘이 혹은 신이 세웠다는 생각 때문에 함부로 왕을 거역하지 못하였다. 현재 태국이나 일본 등도 왕에 대한 일반백성들의 생각은 동일하다. 여기서 정치와 종교는 소위 거룩한 동맹관계(holy alliance)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회교국가에서 어떤 형법이나 민법의 경우 코란경에 기초하여 이 법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이 현대 인권을 증시하는 시대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무리한 면이 있다. 예를 들면 중동이나 아프리카 어떤 국가에는 도둑질한 사람은 손가락을 절단하는데, 그것은 코란경에 기초한 것이다.

라) 종교의 도덕적 기능

종교는 인간과 사회에 도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점에서 종교의 순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 기독교의 십계명은 실제적으로 일반윤리나 법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 원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같은 식으로 다른 종교도 유사한 윤리체계가 있어서 사회의 무질서나 범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다 도덕적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종교의 윤리나 실천, 혹은 습관 등은 보편적 윤리로 통하기에는 무리가 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종교는 사회가 잘못될 때 종교적 가치관이나 윤리에 근거하여 사회를 비판하기도 하며 교훈하며 책망하기도 한다. 여기서 종교는 비판적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 종교의 비판적 기능 혹은 예언적 기능은 기독교가 특히 발전한 셈이

다. 기독교 국가는 많은 비판으로 인하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3.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역기능

현대 사회에 종교의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아가서 국제정치에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다. 특히 국제정치는 종교를 논하지 않고는 풀 수 없는 현실이다. 중동의 문제, 인도네시아, 인도와 파키스탄, 스리랑카, 유고 내전 등.....

종교의 역기능은 첫째, 종교를 이용하여 많은 국가들이 일종의 종교적 집단주의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즉 종교의 이데올로기화이다. 이것은 종교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집단의 선택으로 개인이 함부로 종교를 선택하거나 바꾸지 못한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타종교나 이데올로기를 배제한다. 여기서 반대하는 자는 폭력으로 자기 종교를 강요한다. 원리주의는 바로 이러한 예이다.

과거 아시아인들은 종교에 대하여 비교적 좋은 감정을 가졌다. 종교는 사람을 선하게 하니 좋다는 긍정적 정서가 지배하였으나 폭력을 자행하는 원리주의자들과 극단적 이단 종파의 등장은 종교에 대한 이러한 정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최근 종교의 반근대성을 논할 정도이다. 구라파는 오히려 세속화로 치닫는데, 아시아는 서구식 근대화를 하면서도 자기들의 종교와 전통을 굳게 유지하려고 함으로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즉 근대화와 전통, 혹은 근대화와 전통종교가 공존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하여 일본의 학자들은 문제를 제기한다.

일본 국학대학원 종교학 교수 아베 요시아는 “파괴적 이단 종교(cults)와 종교적 원리주의의 창궐은 현대사회의 질서를 뿌리부터 흔든다”고 우려한다. 이것은 사회나 국가로 하여금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보편적 가치관으로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종교에서 철저히 집단주의 성격을 띤다. 일본의 시골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왕따”를 당한다. 회교학자들은 종교의 개인적 선택을 서구의 잘못된 철학과 기독교 사상으로 간주하고 배격한다. UN인권헌장의 종교자유를 무효화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임의로 제정한 것이라고 거부한다.

이 점에서 아시아 종교는 결단코 관용성이 아니다. 아시아에서 종교의 부흥은 사무엘 헌팅톤이 지적한 대로 “문명충돌”을 초래하고 있다. 아시아는 현재 종교전쟁과 인종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은 사실 종교전쟁이다. 스리랑카의 내전은 종교와 인종갈등의 표본이다.

최근 이 나라는 심각한 내전에 환멸을 느끼고 뜻있는 사람들이 화해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양쪽 온건주의자들을 다 죽여 과격한 자들만 판을 친다. 평화는 요원하다. 배타성은 종교뽀박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진이 강타한 구즈라티 지역은 강성힌두교가 판치는 지방이다. 그래서 혹자는 지진을 신의 심판으로 말할 정도이다.

여기서 다시금 종교의 폭력성을 거론해야 한다. 현대 국제정치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하면서 기독교도 구약은 폭력을 정당화한다고 비판한다. 폭력행사는 비기독교 종교 원리주의에서 절정에 달한다. 원리주의자들이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폭력 사건들이 신문을 장식하는데, 원리주의 집단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회교 원리주의일 것이다.

회교 원리주의자들은 회교 신성국가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비회교 국가, 특히 미국을 주된 적으로 삼고 비행기 폭파 사건 등 많은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이 점에서 종교는 인간의 야망이나 인간정신을 고양시키는 최고의 수단이지만 동시에 편협성과 아집, 혹은 불건전하고 비합리적인 종교행위나 행동은 도리어 사회에 해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종교영화나 종교와 관련된 것은 무시무시한 장면을 연출한다.

비합리적 문화와 의식이다. 문화인류학이나 비교종교학은 종교의 순기능만을 다루지만 우리들은 최근 전통종교의 역기능 문제에 대한 시비를 간단히 넘길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최근 한국에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저서는 유교 측으로부터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 책은 유교의 과거 역기능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많은 공감을 얻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식으로 인도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은 힌두교가 인도사회에 야기하는 여성차별이나 계급 제도 등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취급한다. 힌두교의 계급차별에 대하여 많은 인도인들이 다른 종교로 개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식으로 기독교도 잘못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가 범하는 역기능이 그 종교의 교리적, 본질적 결함인지 혹은 종교가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서 잘못된 실천으로 일으키는 역기능인지를 분간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독교도 중세기에 많은 과오를 범하였다. 과학의 발전을 저해하며 서양 식민지와 결탁하였다는지 가혹한

종교 재판, 남미에서 로마 천주교회가 개신교를 박해한 것, 영국 아일랜드에서의 종교 전쟁 등은 기독교의 역기능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이러한 오류를 범하도록 가르친 본질적인 것이 아닌,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범한 잘못이다.

이러한 잘못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자체 내에서 개혁이나 갱신운동이 일어났다. 반면 기독교는 이러한 과거 역사에서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서구는 기독교로 인하여 정치발전과 과학 발전 등에서 세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 종교의 역기능은 오히려 비기독교 종교에서 더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종교의 역기능은 이단이나 비기독교 종교의 원리주의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

4. 기독교 배타적 구원관 : 배타가 아니다

'98년 군중장교 종교 세미나 때 필자는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필자는 모든 종교는 교리적으로 다 배타주의라고 역설하였다. 기독교도 신학적으로 배타주의이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거부한다. 그러나 다원성은 인정해야 한다. 다원성이란 종교의 평화적 공존을 의미한다. 한국은 다양한 종교가 비교적 평화적 공존을 유지하여 왔다. 이것이 한국사회의 장점이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으로, 즉 인간관계에서는 결코 배타성을 띠어서는 안 된다. 필자는 대화신학을 반대하지만 인간 대 인간의 교제나 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주변에는 다른 종교인이 더 많다. 개인적 대화를 통하여서만 전도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다원주의 신학으로 인하여 지옥을 거부하는

복음주의자들이 갈수록 많아진다. 존 스토틀은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불신자의 영혼은 멸절한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의 배타적 구원관은 결코 배타할 것이 아니라 서구 역사에서 더 건설적으로 나타났다. 배타적 구원관은 종교적 확신을, 확신은 부흥운동을, 부흥운동은 선교운동과 사회복지운동 등을 초래하여 서구사회가 더 부유하고 복지도 잘 된다.

5. 선교적 대처

초대교회 때도 기독교는 다종교 사회 속에서 핍박을 받았다. 더 배타적 구원관과 확신으로 겸손하게 처신하였다. 다원주의는 배타 모델을 교만, 독선, 배타로 말하나 아시아에서 기독교는 교만할 때가 없는 더 피박해자이다. 다른 종교가 더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대화를 거부한다. 종교 독점을 시도한다.

여기서 아시아 기독교의 위기는 혼합주의 위협의 상존과 타종교로부터의 강력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신학자 오오끼 히데오는 기독교 역사를 지중해 선교시대, 대서양 선교시대, 태평양 선교시대로 구분하면서 이제 태평양 선교인데, 가장 어려운 선교시기라고 단정한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중국 기독교의 협력을 제안한다. 선교는 저항에 직면했다.

우리는 기독교 가치관이 궁극적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배타적 구원 모델의 서구가 더 포용적이고(일본보다), 더 민주적이고, 더 공생적이고(복지 면에서), 더 인권적이다. 세계는 경제, 정치, 과학은 서구를 배우면서 서구가 덕을 본 기독교는 배제한다. 일본의 화혼양재는 대표적이다.